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201호 - 창립 2020.6.28



길목교회
THEWAY NEWS

주후 2024.5.19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화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사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테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교육전도사 : 전정민
교육전도사 : 김상진
음악사역 :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기타 :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주일에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전정민 전도사

입례송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 = 63 *p* Eb Ab Eb Bb Cm G Cm Bb Eb Ab Bb Eb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Ab Eb Bb Cm Ab Bb4 -3 Eb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성시 교독 <시편96편> 다같이

(인도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성도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인도자)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성도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인도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성도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으로다

(인도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성도들)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인도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성도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인도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성도들) 발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다같이) 그 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참회 기도 <나,이웃,교회,나라,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산 다같이

(인도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받았습니다.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나눔

말씀 교독과 듣기 <고린도전서 5장> 다같이

말씀 묵상 및 나눔 다같이

말씀나눔 전정민 전도사

묵상 기도 다같이

응답의 찬양 다같이

♩ = 72

p F C Dm B♭ D G C F C Dm Gm C 3 F

사 랑 의 나 눔 있 는 곳 에 하 나 님 께 서 계 시 도 - 다

2번 함께 부릅니다

말씀 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 감사 찬양 <주의 은혜라> 다같이

✚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성경말씀 메시지

1-2 또한 나는 여러분 교회의 가족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성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런 일로 당혹스러워하기는커녕 태연하기만 하더군요. 그 일로 비탄에 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로 무릎을 꿇고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저지른 자와 그 소행에 맞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5 나라면 어떻게 할지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지요. 내 몸은 그곳에 있지 않지만, 내가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있다고 여기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그런 행위는 잘못되었습니다. 그저 외면한 채 그런 행위가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권위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십시오. 공동체의 교우들을 모으십시오. 나는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조사하십시오. 그에게 자기 행위를 변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변호하지 못하거든, 그를 쫓아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충격적이고, 여러분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기보다, 그가 충격을 받고 여러분이 당혹스러움을 겪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다시 일어서서 심판 날에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6-8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보인 경망스럽고 무감각한 교만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작은 것으로 여기지만, 그 교만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빵 반죽 전체를 아주 빨리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러니 그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한결같고 순수해야지, 나쁜 성분 때문에 부풀려져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이신 메시아께서 이미 유월절 식사를 위해 희생되셨으므로, 우리는 누룩을 넣지 않은 유월절 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어 부풀어 오른 빵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한 빵, 곧 단순하고 참되고 꾸밈없는 빵으로 유월절에 참여해야 합니다. 9-13 나는 전에 보낸 편지에서, 성관계가 문란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말은 그 같은 짓을 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 곧 육체노동을 하거나 사무직에 종사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 영적인 사기꾼들과 전혀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예 이 세상을 떠나야 할 테니까요!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어떤 친구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나님께 건방지게 굴거나 친구들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술 취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이기적인데도, 여러분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과 어울려서도 안되고, 그런 행위를 용납해서도 안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자매가 가던 길에서 벗어날 때, 필요하다면 그들을 내쫓아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경말씀 개역개정

1.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3.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멀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6.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9.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1.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2.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13.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메모



감사찬양

주의 은혜라

blog.naver.com/suneun0691

Words & Music by 손경민

FM7 Em7 Dm7 C/E

5 FM7 C/E Dm7 F/G G

10 C Em F G 내 평
생 살 아 온 길 뒤 돌아 보 니 짧 은

14 C Em F G7 C C/E
내 인 생 길 오 직 주 의 은 혜 라 주 의

18 FM7 C/E FM7 C/E
은 혜 라 주 의 은 혜 라 내 평 생 살 아 온 길 주 의

22 FM7 E/G# Am7 Em7 FM7 G
은 혜 라 주 의 은 혜 라 다 함 이 없 는 사 랑

27 G7 C Em F G
달 려 갈 길 모 두 마 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 는

32 C Em F G7 C
공 로 전 혀 없 도 다 오 직 주 의 은 혜 라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30~3:00
사모공동체 모임	금요일 오후 1:00~4:00
청년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30~3:0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교육전도사	김상진		

찬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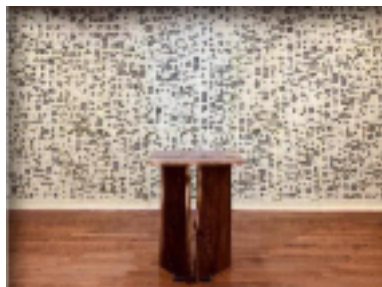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헌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 가치추구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중보요청

<클레시스> 정화영 전도사님이 6월, 몸의 이상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무보수로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역을 해 온 전도사님이 무사히 수술하고 이후에도 사역을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길목교회 통장으로 <정화영본인이름> 입금해주시거나, 오프라인으로 봉투에 <정화영> 이름을 넣어 헌금해주시면 모두 모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통독 여름수련회

언제 - 7.27(토)~30(화) [27(오후3시)-28(하루종일)/ 29-30(저녁7시-11시)]

방식 - 성경통독 수련회 | 장소 - 길목교회 본당

그리스-튀르키예 성지순례 모집

내년 봄, 길목교회 9박10일의 그리스-튀르키예 성지순례에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지금부터 성지순례를 위해 준비해주세요.

일정 - 2025년 2월 또는 3월 / 비용 - 309만원 + a / 가이드 - 이길주 목사

신청 - 길목교회 홈페이지

중보요청

클레시스 정화영 전도사님 수술을 위해 중보부탁드립니다 (안쪽 페이지 상세설명)

점심식사 섬김

6월30일 - 권종신, 이길주 목사 / 7월14일 - 박사무엘, 전정민 전도사

8월4일 - 조성권 청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실 때 함께 나누어주세요 ^^)

담임목사 성지순례 가이드 사역 중보

참여한 팀과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중보해주십시오.

5.14-19 평신도대학원생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

5.20-26 황서노회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